

설 명절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익산시, 21~24일까지 총11개반 1일 70여명 구성 상황 근무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11개 반으로 구성하고 1일 70여명의 공무원들이 상하 근무에 돌입한다.

비상대책반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인정 △코로나19 대응 △재난대비 △교통중립 △악취 △생활환경 △도로 △의료진료 △상하수도 분야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성수품 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 불공정 상행위 점

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킬 예정이다.

지역 개인 서비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고물가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한 익산 다이로움 확대 발행,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성수물품 합인행사도 개최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속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 위문, 아동급식 부식 배달 등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이어나간 다. 시는 설 연휴기간 상황실·재택관

리지원팀·역학조사팀·환자이송팀·코로나19 예방접종팀 등 총 5개팀으로 코로나19 상황대책반을 구성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봉공설묘지 개방으로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대책도 철저히 추진한다.

교통종합대책반은 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원팔봉삼거리~한술장례식장 등에 배치돼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를 합을 예정이다. 또한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셔틀버스 6대,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가 무료로 운행된다.

이밖에도 연휴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생활환경, 악취, 도로 상황 등 생활민원에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多e로움, 골목상권 살린다

개인별 월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자유롭게 충전 사용

익산 다이로움이 올해도 전국 최고 혜택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경기침체와 고물·고물가에 대응해 다이로움을 5천5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전국 최대 20% 혜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개인당 인센티브 충전 한도도 월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충전 인센티브와 별도로 다음달 지급되는 소비촉진지원금까지 지급됨에 따라 쓰고 받고 또 받고의 1석 2조 혜택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이로움은 지난 2020년 출시 후 2년 9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익산시민 70% 이상이 가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은 50만 원까지 10%, 50만원 초과 100만원까지 5%로 차등 지급되며 스마트폰 사용자

는 착한페이 앱에서 자유롭게 충전·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 사용자는 농협 창구에 방문해 충전하면 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을 활용한 장보기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11개소에서 다이로움 카드를 통해 3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로움 정착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대 20% 혜택을 제공하는 익산 다이로움은 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익산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시장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출원심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현 의원은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익산시 지역사회 위기 극복 정책을 제안했으며, 장경호 의원은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남석 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편의 및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출원심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현 의원은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익산시 지역사회 위기 극복 정책을 제안했으며, 장경호 의원은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남석 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편의 및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군산시, 자주재원의 근간 시세 2천만원 초과 달성

군산시는 18일 지난 2022년 지방세 결산 결과 자주재원인 시세 세입액 2,11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며 2008년 1천억 원을 달성한 후 14년 만의 쾌거로 '자립도시 군산' 자주재원 확보의 전환점이 도래한 것이다.

도세(道稅)를 포함하면 지방세 수입액은 3,634억 원(시세 2,115억 원, 도세 1,519억 원)이며 이 또한 역대 최대금액이다.

지난해 관내 중견기업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영업이익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입 증가를 견인했다. 1억 원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업이 2021년 21개 법인(52억 원)에서 41개 법인(21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올해는 유류세 인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전망 및 중부세 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경기변동과 정부정책에 누락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AI 도서관 변신...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익산시립도서관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18일 시는 빅데이터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립도서관 5곳의 로비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키오스크(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독서 취향 성향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 보다 스마트한 도서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제공된 시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서비스는 도서관 사서가 특정 주제에 따라 도서를 선별해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해 북큐레이션 키오스크 화면에서 인공지능 도서추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관심 분야를 고르고 관심사에 맞는 도서 3권을 샘플로 선택하면 성향에 맞게 추천된 최적의 도서 20여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행복 프로젝트 '1시민 1악기' 확대

30일까지 수강생 모집, 특별·개인별 강좌까지 지원 규모 늘려... 강습 후 발표회

익산시민의 특별한 행복 정책,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시는 팀부터 개인까지 아우르는 분야별 강습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전 시민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1시민 1행복 프로젝트'로 점차 확장시킬 방침이다.

18일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1시민 1악기 악기 강습 수강팀을 20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팀을 구성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했다.

수강생은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5인 이상은 △희망장소 25개 팀(피아노 제외), △원광대 7개 팀(피아노,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을 모집한다.

개인 신청할 수 있는 강좌는 △익산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가야금, 대금, 해금 등 3개 강좌, △익산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이올린, 플루트 등 2개 강좌이다.

신청은 특별 또는 개인별로 나눠 할 수 있다. 특별 신청의 경우 시 문화관광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은 강습장소(익산문화원, 익산생활문화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296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팀이나 개인은 약 5개월간 강습받을 수 있으며 강습이 마무리되면 발표회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수상

팀은 다음 강습 혜택과 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를 편견해 무료로 악기를 강습해 주는 사업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됐던 악기 강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발표회를 통해 악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18일까지 2024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 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

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분야 정부지원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시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 심의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라북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설 명절 군·경·소방대원 위문 격려

군산시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향토방위와 치안 안전 등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군·경·소방대원을 위문 격려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경 장병과 소방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임무수행에 대한 위로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공군38전투비행전대 오충원 전대장(대령)은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벽한 국토방위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

전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며 항상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철저한 치안과 화재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